

“성사 은총 안에서 형제 공동체인 교회, 복음을 전하며 피조물을 돌보는 교회”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하기동성당

연중 제11주일
2026년 6월 14일
제1053호(가해)

주소(34093) 대전시 유성구 송림로 49 사무실 (042)823-7621 주임신부 826-7621 위령회장 010-7638-9995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마태 9,37

두초 디 부오닌세냐의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그리스도>

주일	토(특전)	17:00	평일	월	06:00	성체강복	매월 첫 목요일	19:30
	교중	10:30		화,목	19:30	성시간	매월 첫 금요일	19:30
	저녁	19:00		수,금	10:30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0:30

전례 성가	입당 17	봉헌 210, 216	영성체 186, 155	파견 63
화답송				

주일	시간	주송자	제1독서	제2독서	청소, 차봉사	승합차 봉사
연중제11주일	13일(토)	17:00	성은호	장지희	5구역	김재룡 이봉금
	14일(주일)	10:30	김기평	엄태헌		
		19:00	박종찬	김지원		
연중제12주일	20일(토)	17:00			6구역	서정인 최행복
	21일(주일)	10:30	이재섭	성하옥		
		19:00	김주성	김지수		

(단위 : 원)	주일헌금	교 무 금	성소후원	사회복지	농협, (재)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삼위일체대축일	1,361,000	250,000	5,000	5,000	•교 무 금 351-0750-7442-33
누계	1,361,000	430,000	35,000	15,000	•성소후원금 351-0750-7486-63
					•사회복지후원 351-0750-7494-33

연중 시기를 특별하게 보내는 법

성탄 시기가 끝나면 교회는 ‘연중 시기(Ordinary Time)’에 들어간다. 연중 시기는 성탄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 대림 시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영어에서 ‘ordinary’는 “일상적인, 흔한, 평범한”이라는 뜻이다. 말하자면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라는 의미처럼 들린다. 하지만 ‘연중 시기’라는 이름은 원래, 그 주간들이 ‘서수’, 예컨대 1주일째, 2주일째, 3주일째로 번호가 매겨진다는 사실에서 왔다. 예를 들어 지난 주일은 ‘연중 제4주일’이었다. 올해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중 주일이 여섯 번 있다.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에야 다시 연중 시기로 돌아온다. 연중 시기는 대림 시기까지 이어지며, 올해 연중 시기는 모두 34주간이다. 그러나 연중 시기가 꼭 ‘평범’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성경과 기도의 체험을 더 깊게 하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연중 시기는 특별해질 수 있다.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너무 적게 읽는 현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가톨릭 신자 가운데 성경을 적어도 주 1회 읽는 비율은 12%에 불과한 반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은 52%에 달한다. 우리는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한때 가톨릭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권하지 않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개신교로 기울 수 있다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평신도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직자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 시절 가톨릭은 성경을 근본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진화를 부정하고 세상이 7일 만에 창조됐다고 믿기도 했다. 이 흐름은 비오 12세 교황 아래에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가톨릭 성서학자들이 근본주의를 거부하고, 성경 해석에서 현대의 역사적·문학적 연구 도구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러한 성서학의 혁명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토대를 마련했다.

연중 시기 동안 교회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에 깊이 잠기도록 초대한다. 1969년 가톨릭교회는 주일 미사 독서를 3년 주기(가·나·다 해)로 구성해 발표했다. 올해는 ‘가해’로, 마태오 복음을 사용한다. 나해는 마르코, 다해는 루카 복음을 사용한다. 제1독서는 복음에 나타난 어떤 주제를 이어받아 구약에서 선택된다. 반면 제2독서는 다른 독서들과 주제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신약 서간들에서 연속해서 읽는다. 이러한 공통 전례 독서의 장점은, 어떤 본당 공동체든 사목자의 취향이나 편중된 선택에만 의존하지 않게 해 준다는 점이다. 대신 성경 전체를 폭넓게 맞볼 수 있도록 이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성경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성당에 가기 전, 그 주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한다. 사목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듣고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 읽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런 다음 강론을 들을 때, 내 묵상과 강론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사목자와 같은 통찰을 얻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다. 사목자가 독서의 핵심을 놓쳤다고 느낄 수도 있고, 내가 놓친 것을 사목자가 짚어줬다고 느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미사 전에 성경을 읽어두면 전례 안에서의 체험이 훨씬 풍성해진다.

성경을 읽기 전에, 잠시 멈춰 머릿속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짧게 기도해 보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게 하시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제 마음에 보내주소서.” 성경을 읽은 뒤에는 “이 독서가 성부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라고 자문하며 묵상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독서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응답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게 될 수도 있고, 죄를 뉘우치며 더 나아갈 은총을 청하게 될 수도 있다. 혹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세상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을 듣고, 그 다음 내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묵상보다, 상상력을 사용해 복음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에 더 도움이 된다. 핵심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주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혼자만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나누며 묵상할 때 오는 풍요로움이 있다. 이는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할 수도 있다. 함께할 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이들은 전용 페이스북 페이지나 단체 문자 채팅으로도 가능하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서로의 묵상을 나누며,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한다면, 연중 시기에도 충분히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교육홍보분과 편집

5월 우리들의 정성

(5/1~5/31)

■ 교무금 (115명, 10,355,000원)

강성길 강영국 강정모 강준선 고희재 곽나은 구상용 권시온 김권호 김금례 김기평 김길조 김남기
김대홍 김서윤 김성은 김재경 김재룡 김재현 김주성 김진호 김채련 나선아 노영환 명노희 민남식
박길자 박미자 박민정 박은옥 박재현 박종재 박종찬 박지민 박지용 박치관 방석준 방현욱 배정옥
백경희 백승길 서민경 서영주 서외숙 석희문 설옥임 성열소 성하옥 손미선 손인환 신원식 안향자
양승화 양희일 여경자 여옥순 오선옥 오현희 유덕자 유병근 유 열 유인순 윤도경 윤미옥 윤정환
윤희중 이계림 이병용 이봉헌 이상환 이성행 이세진 이송화 이영숙 이영휴 이영희 이요안나 이은미
이은지 이재섭 이정오 이정옥 이지우 이지혜 이진희 이충효 이화수 이후창 임윤택 임재림 장다정
장문순 장지희 장태현 정광숙 정낙중 정동일 정병희 조만순 조수현 조영미 차동진 최문진 최성희
최영주 최은정 최인경 한경숙 한덕원 한문석 한상휴 한점순 한창환 허성재 호종환

■ 성소후원금 (39가정 731,000원)

강영국 구상용 김기평 김길조 김재룡 김주성 노영환 박길자 박미자 박민정 박재현 박종찬 방석준
방현욱 백승길 설옥임 성하옥 손인환 양희일 여옥순 오현희 유병근 유 열 유인순 이봉헌 이성행
이재섭 이지혜 이충효 이화수 이후창 임윤택 장문순 정낙중 정동일 최인경 한상휴 한창환 호종환

■ 사회복지후원금 (25가정 446,000원)

강영국 김기평 김길조 김재룡 김진호 노영환 박미자 박민정 방석준 백승길 설옥임 양희일 여옥순
유 열 유인순 이봉헌 이성행 이세진 이충효 임윤택 정낙중 정동일 조수현 한점순 한창환

환우를 위한 기도

•2구역 한영석(임마누엘) •3구역 유정규(아네스), 황규태(토마스)
•4구역 이영희(실비아) •5구역 김웅창(엘리사벳)

◆ 6월은 예수성심성월

- 교회는 예수 성심 대축일이 있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정하여 축일을 성대히 기념하고 성시간과 기도회 등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 행사를 통하여 성심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 특별헌금

- 연중12주일(21일) 통일기금 마련
- 연중13주일(28일) 교황주일, 한끼100원나눔

◆ 홍광철(세례자요한) 신부님 영명축일 기도

- 6월 24일(수)은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많은 기도를 바랍니다.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교리 시작: 7월 첫 주일
- 접수 및 문의: 성당 사무실

◆ 봉사자 교육(25일 저녁 미사 후)

- 제자교육 두번째과를 팀원들이 함께 공부하고, 나누시고, 만나시며 대화하신 후 발표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 발표 자료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팀원의 의견이어야 합니다.
- 각 팀의 팀장님들은 함께 할 봉사자들을 초대하여 그 팀에서 함께 활동해 주십시오.

◆ 단체별 모임

사 목 분 과 회 의	14일(주일) 교중미사 후
꾸 리 아	18일(목) 저녁미사 후
사 목 회	21일(주일) 교중미사 후
안 나 회, 요 썩 회	28일(주일) 교중미사 후
청 년 회	28일(주일) 저녁미사 후

- 모든 단체는 모임 후 회의록을 제출해 주세요.

◆ 교구 여성연합회 주관 젓갈류 판매 신청 접수

- 새우젓(육젓 2kg), 액젓(1.8L, 5kg, 10kg)
- 신청 : 1층 게시판(6월 28일 주일까지)
- 가격 : 추후 공지

◆ 성경 통독 함께해요

-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성 예로니모(Saint Jerome)
- 참여 방법: 사무실에 접수

◆ 신앙으로 초대하는 선교 세트

- 신앙을 권면하며 선물하기 좋은 「가톨릭 기도서·예비자 교리서·묵주 세트」를 마련하였습니다.
- 판매: 성물방, 본당사무실

◆ 2027 WYD를 위한 묵주기도 10억단 봉헌 운동

- 방법: 묵주기도 5단을 바쳤을 때 나무구슬 1개를 1층 엘리베이터 옆 봉헌함에 넣어주세요.

◆ WYD 홈스테이 가정 추가 모집

- 3가정만 더 신청해 주십시오(현재 2가정 신청)

◆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 13일(안토니오), 14일(엘리사), 15일(젤마나), 18일(그레고리오), 19일(율리아나, 로무알도)

◆ 본당재정 5월 수입·지출 현황

수입(교무금, 주일헌금 등)	18,016,500원
지출(교납금, 관리비 등)	16,592,000원

- 본당 재정은 교우 여러분의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노드최종문헌	주간묵상글	사회교리
		